

#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해단

### 도, 최근 5년 중 최고 성적... 금 2·은 4·동 8·우수상 10개 입상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목포 일원에서 개최된 2018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회에 참가한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식이 8일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38개 직종에 10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2, 은메달 4, 동메달 8개 등 종합점수 666.5점을 획득하고 전국 9위를 기록하여 지난해 10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성적을 거두었다.

최근 5년간 성적 : 2014년 15위, 2015년 11위, 2016년 10위, 2017년 10위, 2018년 9위

해단식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14명에게 상장을 전수하고, 유공자 8명에게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기능인력들이 도내 산업현장에서 핵심역할을 다하고, 우수 기능 인력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관련예산을 매년 약 5.0%씩 꾸준히 늘려왔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도가 거둔 성적이 지난해보다 1단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특성화고 중심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기능인력 양성에 힘쓴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북도는 2020년 도내 일원에

서 개최되는 기능경기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 등과 협력하고, 홈에서 개최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전북도 유근주 일자리경제정책관은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에 대해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기량을 갈고 닦아 전북 기능인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배치 협의”

### 문 대통령, 에이브람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 요청 “한미동맹 힘으로 새 평화 만들어가...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로버트 에이브람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다양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줄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령관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령부 역사가 한미동맹의 역사”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고, 지금은 한미동맹의 힘으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의 뒷받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중심으로 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창설 4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지난 40년, 평화와 안보를 향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투철한 사명감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됐다”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의 경례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지난 31개월, 연합

사령관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령부 역사가 한미동맹의 역사”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고, 지금은 한미동맹의 힘으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의 뒷받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중심으로 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창설 4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지난 40년, 평화와 안보를 향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투철한 사명감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됐다”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의 경례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지난 31개월, 연합

##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으로 조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올해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정’의 촉촉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불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000원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할 방침이다. /뉴시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해 한마디 합니다” 새만금 재생 에너지 사업 정략적 반대 규탄 기자회견이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도의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 정부 ‘클린디젤’ 폐기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논의

## 95만대 저공해경유차

### 각종 감면혜택 폐지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차량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게는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먼지 유발효과는 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저감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내년 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에선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까지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경유차를 제로화한다.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80여종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단위 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3~6배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현행 440만~770만원 수준에서 현실화한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관 10% 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올해 세종과 울산·전주에 이어 내년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망 확충 대책으로

광역급행버스를 올해 34개로 확대한 데 이어 권역별 BRT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와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노후 발전소 5기를 중심으로 했던 분철(3~6월) 셧다운 대상은 실제 배출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조정한다. 이를테면 올해까지는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 대신 내년부터 단위배출량이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가 가동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올 연말 폐기되는 영동 2호기를 제외한 4기가 미세먼지가 심한 내년 봄 가동을 멈춘다.

내년 4월엔 경제비용의 약 40%를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연료세율을 조정한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무색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날림먼지를 줄인다. /뉴시스

#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 제도 개선

## 18일 세종문화회관서 공청회

국기원(원장 오현덕),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장용갑)가 주최하고 태권도 제도개선 TF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및 이동섭 의원이 후원하는 ‘국기 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열린다.

지난 8월, 4개 분과로 구성된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팀(이하 제도개선 TF)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오전 1부 오후 2부 순서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에는 태권도 제도개선 방안을 분과별로 발표하고, 2부에는 패널 토론 및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그동안 소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에서 벗어나 이번 공청회는 방청객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여론수렴과 공론화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1부 태권도 제도개선 TF 1분과(분과장 임신자)의 ‘국기원 조직구조 개선과 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체계구축 방안’, 2분과(분과장 김중현)의 ‘국내외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 및 단종발급 제도개선 방안’, 3분과(분과장 김하영)의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 방안’, 4분과(분과장 안

재운)의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분과별로 30분씩 발표하게 된다.

2부 패널 토론 및 자유 토론, 발표된 각 분과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분과별 발표자, TF위원, 외부 패널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분과별로 15분씩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이어서 방청석과 함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평일에는 도정운영 등 생업(生業)으로 공청회 참석이 어려웠던 태권도 사범과 직장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 개최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청회 참가자의 사전등록(태권도원 홈페이지 참조)과 현장등록을 진행한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국민들에게 가장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생중계를 실시하며, 공청회 참가 등록자에 한해서 질의 등 발언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태권도 제도개선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태권도 제도개선 세부실행방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며 여기서 마련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태권도 단체장 간 협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번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wadwon.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공고 제2018-544호

###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도 당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일괄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8. 11. 08 ~ 2018. 11. 21(14일간)
- 의견제출기간: 2018. 11. 08 ~ 2018. 12. 07(30일간)
- 공고장소: 김제시청 공민복지과(4층)
- 관제도시: 개성생방
- 의견제출: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입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는 정읍국유림관리소로 산입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김제시 공민복지과로 아 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축영도면 등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일괄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공민복지과 산입보조계(☎ 063-540-3225), 정읍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팀(☎ 063-570-1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8. 김 제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